

'40~64세' 평균 소득 4000만원... '2030'의 1.5배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중장년층(40~64세)의 연간 평균소득이 4000만원으로 청년층(15~39세·2781만원)의 약 1.5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인구에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웃돌았다. 매년 100만명 안팎 출생한 2차 베이비부머(1968~1972년생) 연령대이기도 하다.

◇소득, 대출도... 중장년층, 청년층의 1.5배=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2020만명으로 총인구의 40.5%를 차지했다.

청년층이 1492만명으로 29.9%, 노년층(65세 이상)이 905만명으로 18.1%였다.

아직은 40~50대가 두터운 향아리형 인구피라미드인 셈이다. 다만 저출산·고령화로 빠른 속도로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는 상황이다.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보면, 중장년층은 지난해 연간 4084만원의 소득(근로+사업)을 얻었다. 전년 3890만원보다 5.0%(194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청년층은 2613만원에서 2781만원으로 6.4%, 노년층은 1645만원에서 1771만원으로 7.6% 각각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 격차는 경제활동과도 맞물려 있다.

중장년 대출액 6천만원으로 급증... 청년 4천만원 '4인 가구' 옛말... 대체로 1~2인 가구 '많아야 3인'

중장년층의 등록취업자는 1373만명으로 해당 연령대의 67.9%에 달했다. 청년층에서는 등록취업자가 56.9%(848만명)에 그쳤다.

대출도 중장년층이 청년층의 1.5배에 달했다.

중장년층의 금융권 대출잔액(중앙값)은 지난해 11월 6060만원으로, 청년층(4000만원)이나 노년층(3300만원)보다 크게 많았다.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련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894만명으로 중장년층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청년층에서는 주택 보유 비율이 11.8%(176만6000명)에 불과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주택소유 비중은 0.6%포인트 줄고, 중장년층의 비중은 0.5%포인트 늘었다.

◇노년·중장년층은 '암', 청년층은 '자살' = 건강·사망 통계에서는 노년층이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연간 진료비로는 노년층이 515만원을 지출해 중장년층(197만원)의 2.5배에 달했다. 청년층의 진료비는 약 1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남녀 모두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사망자 수에서는 노년층이 81.4%를 차지했다.

중장년층은 16.3%, 청년층 2.1% 순이었다. 사망원인에서는 노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악성신생물(암)이 각각 20.0%와 3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년층에서는 코로나19 사망도 9.5%로 적지 않았다.

청년층에서는 '고의적 자해'(자살)가 사망원인의 43.1%에 달했다.

◇중장년층 가구도 평균 2.58명=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는 청년 1.85명, 중장년 2.58명, 노년 1.89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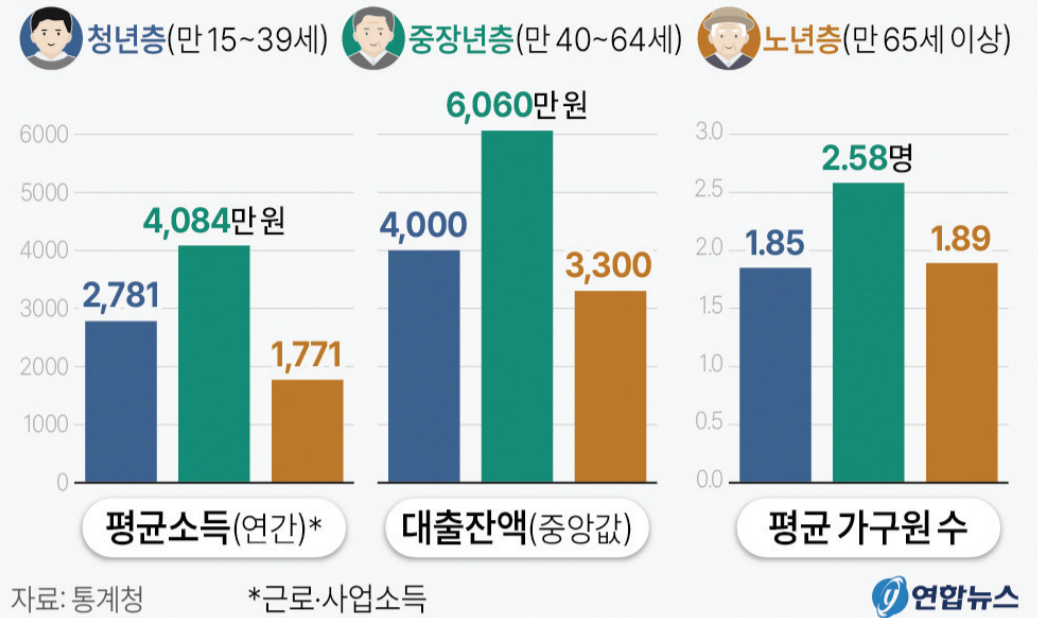
대체로 1~2인 가구이고, 중장년층을 가구주로 두고 있는 가정에서도 2~3인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청년층에서는 1인 가구가 55.3%에 달했다. 이어 2인 19.2%, 3인 14.2%, 4인 11.6% 순이었다.

노년층 역시 2인 44.2%·1인 37.0%로 1~2인 가구가 80%를 웃돌았다.

연령계층별 소득·대출 현황

2022년 11월 1일 기준



자료: 통계청 *근로·사업소득

중장년층에서는 4인 가구가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했지만 1인(24.3%)·2인(25.7%)·3인(24.0%) 가구가 별다른 격차가 없었다.

생애주기상으로 30대 초반까지 주로 '1인 가구'

로 지내다가,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부부·미혼자녀 또는 한부모·미혼자녀의 2~4인 가구로 가족이 늘어나는 흐름인 셈이다. 노년층에서는 60대엔 부부 2인 가구, 70대 후반부터는 1인 가구로 지내게 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해 육아휴직 늘었다... 10명 중 3명은 아빠

전년비 28%는 5만4240명 '역대 최고'...엄마 14만5736명 엄마는 자녀 0살 때·아빠는 6살 때 육아휴직 가장 많이 사용

'워킹맘' 강성만(42)씨는 지난해 10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여섯 살 배기 딸아이를 육아 중이다.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 건 강씨 회사에서 첫 사례다. 강씨가 재직 중인 회사는 비교적 보수적인 분위기로 육아휴직을 내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딸아이를 아내를 위해 육아휴직을 결심했다고 했다. 강씨는 "주변에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가족을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28% 늘어난 5만여 명으로, 엄마를 포함한 육아휴직자는 11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년 전보다 14.2% 증가한 19만9976명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2011년(28.7%) 이후 가장 컸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240명으로 전년보다 28.5% 늘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만명을 넘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736명으로 9.6%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7.1%로 나타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엄마의 비중은 72.9%로 집계됐다. 아빠의 2.7배 수준으로 성별 격차는 여전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을 한 엄마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30대 초반(30~34세)이 40.8%, 30대 후반(35~39세)이 34.1%로 나타나 30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40세 이상(14.9%), 30세 미만(1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아빠 육아휴직자는 엄마보다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 후반(39.7%)이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도 35.3%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30대 초반(21.8%), 30세 미만(3.2%)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부모 가운데 작년 육아휴직자의 수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8만79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1만2888명으로 1년 전보다 120.5%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엄마는 주로 자녀가 0살 때, 아빠는 6살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썼다.

2013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자녀 나이 0살 때 쓰는 비중이 83.2%로 압도적으로 컸다.

아빠는 6살이 19.0%로 가장 컸고 이어 7살(17.2%), 8살(15.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고려인마을에 농산물 꾸러미 전달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19일 한국새농민 광주시회 회원들과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에서 찾아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달된 농산물은 한국새농민회 광주시회 회원들이 직접 수확한 햅쌀 50포와 배, 토마토, 가지, 감, 피망, 감귤 등의 농산물로 고려인마을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노홍기 한국새농민 광주시회장은 "한국새농민회는 농업을 이끌어 가는 선도농업인 단체로서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평범함이 담긴 건강한 농산물을 드시고 이주 고려인들이 연말연시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농업인의 대표 단체인 한국새농민회와 함께 우리농산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랑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자립 준비 청년에 의료용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찾아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의료용품 키트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용품 키트는 구급용품과 영양제로 구성됐고,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선정한 통합사례관리대상 자립준비 청년 120명에게 전달됐다.

이번 기부는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영양지원이 부족한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의료지원을 위해 준비했다.

광주은행은 이밖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 치료가 어려운 자립준비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 상당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광주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해 월세 지원과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직원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네트워크 형성 방법 등을 전수하며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 대표은행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경총 "2025년 군공항 무안 이전 환영"

지역 대표 경제인 단체인 광주경총총협회(회장 양진석·후원회 회장·사진)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경우 광주 민간공항을 KTX 개통 시기에 맞춰 오는 2025년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경총은 20일 "지난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오는 2025년까지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원칙에 합의했다"며 "두 시·도지사가 늦게나마 전격 합의에 따라 광주·전남 공항 이전 갈등이 봉합되는 수순이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사·도가 협의해 민간 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 ▲광주 민간·군 공항이 무안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무안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설득한다 ▲사·도는 '소음피해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 군공항 유치 지역 지원 조례'(광주) 제정, 무안 발전을 위한 '무안 미래 지역 발전 비전'(전남) 추진 ▲무안 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사 재정지원, 국제행사 유치, 사·도민 이용 편의 제공 등에 공동 노력한다 ▲KTX 2단계 개통에 맞춰 공항 활성화를 위

해 공동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 등의 전제조건을 단 만큼 광주경총은 두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광주시·전남도·무안군"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계획과 무안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중앙 정부도 실효성을 담보한 적극적인 후속 지원과 무안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군·민간 공항 이전 과정에 전향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셜벤처기업 10곳 중 5곳 '젊은 기업'

1300여 곳 창업 7년 안돼

국내 소셜벤처기업은 2450개로, 절반 이상이 7년이 안 된 젊은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벤처기업 수는 전년보다 12.1% 늘어난 2448개로 집계됐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과 혁신 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가 이 중 185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셜벤처기업의 44.4%는 수도권에 있으며 나머지는 영남권(21.5%), 호남권(14.5%), 충청권(13.9%), 강원·제주(5.7%) 등 순으로 많았다. 광주는 3.9% 전남은 4.8%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업력은 7.8년으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 54.2%였다. 벤처기업(10.6년) 등 타 기업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았다.

작년 소셜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5000만원 증가했다. 평균 자산은 31억원이었다.

소셜벤처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평균 21.6명을 고용했다. 이중 정규직 수가 평균 19.3명, 비정규직 수가 평균 2.3명이었다.

장애·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소셜벤처기업 비율은 69%로 평균 11.5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인원이 평균 8.0명, 장애인은 평균 1.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구개발(R&D) 조차·인력 보유 비율은 62.7%로 파악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14.30(+45.75)
↑ 코스닥	862.98(+4.68)
↓ 금리(국고채 3년)	3.232(-0.064)
↓ 환율(USD)	1298.90(-8.90)